

박근혜 파면... 방송 · 연예계도 “만세”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문화예술인들, 개그맨 포함 방송인들, 배우, 가수들은 SNS를 통해 현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소설가 이외수는 현재 판결 직후 "전원일치 탄핵 결정, 울었다", "멋진 대한민국 끊임없이 눈물이나"고 말했다. 평소 SNS를 통해 시국에 관한 소식을 밝혀온 배우 유아인은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소설가 이외수 · 배우 유아인 · 가수 이승환 등 SNS 통해 현재 탄핵인용 판결 지지 배우 공효진 등 타 연예 · 방송인들도 TV 화면 · 대통령 파면 환영 문구 SNS에 올려

국"이라는 짧은 글로 현재 판결을 지지했다. 가수 이승환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2항을 말했다.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백지연도 거들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산을 넘었다. 이제 숲 한번 고르고 정말 중요한 산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배우 이기우는 "참 오래도 걸렸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의 힘이다.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내 나라"라고 썼다.

배우 문정희 또한 "2017년 3월10일 탄핵 인용. 봄날 헌법 수호 대한민국.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모두 수고하셨다. 이제부

터가 중요할것 같다. 짜릿한 오늘"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가수 윤하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연예 · 문화인들은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TV 화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올리기도 했다. 배우 김효진 · 방송인 김나영 · 안선영 · 가수 겸 배우 임슬옹 등은 이 대열에 합류했고, 배우 공효진은 해외 촬영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탄핵 방송'을 보고있는 모습을 찍어 "벌리셔도"라는 말과 함께 올렸다.

개그맨 김재우는 "오늘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글과 함께 태극기 사진을 올렸다. 또 가수 겸 배우 옥택연은 "파면"이

라는 두 글자로 심경을 전했고, 배우 김수로는 "이제 더 열심히 일하자"고 했다. 배우 윤균상은 자신이 현재 출연 중인 드라마 OST 가사를 활용해, "봄이 왔구나. 따뜻한 봄이"라고 말했다.

배우 임주환은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를 SNS에 올렸고, 배우 선우선은 "축배를 들자", 모델 헤박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방송인 최희는 "현정 질서 수호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새로운 봄이 오길 기대한다", 가수 신지은 "쫄쫄의 승리", 배우 이세영은 "만세"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현대, 수원 2-0 격파 K리그 개막 후 2연승 질주

김보경 · 이재성 골... 승점 3점 챙겨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수원 삼성을 꺾고 2연승을 달렸다. 전북은 지난 1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2라운드 수원 원정경기에서 김보경과 이재성의 연속골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를 거둔 전북(2승·승점 6)은 제주 유나이티드에 골득실에 밀려 2위에 자리잡았다. 수원(1무1패·승점 1)은 개막전에 이어 이날 역시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시즌 첫 승을 다음으로 미뤘다.

전반 초반 양팀은 탐색전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갔다. 수원은 조나탄, 전북은 김신욱을 활용해 상대의 골문을 노렸다. 전반 30분까지 신중한 경기를 펼쳐 나간 양팀은 본격적으로 공격에 나섰다.

선제골은 전북이 가져갔다. 페널티에어리어 안에서 돌파를 하던 이승수가 이정수가 태클로 저지했지만 반칙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김보경이 깔끔하게 성공시키며 앞서 나갔다.

수원은 조나탄이 막히면서 힘든 경기를 펼쳤다. 전북은 좌우 측면을 활용한 공격을 펼쳤다. 계속해서 공세에 나선 전북의 추가골이 터졌다.

전반 42분 프리킥 상황에서 김진수의 크로스를 이재성이 골문으로 달려들며 헤딩골로 연결시켰다. 김진수는 개막전 K리그 데뷔골에 이어 이날 도움까지 기록하면서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후반 들어 수원은 서정진, 조원희, 산토스를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전북은 이도훈, 에델 등을 투입하면서 추가골 사냥에 나섰다. 일일전투 공방이 벌어졌지만 소득이 없었다.

이후 양 팀 모두 몇차례 골 찬스 기회를 잡았지만 더 이상의 골은 터지지 않았다. 전북이 수원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다. /김민근 기자

'WBC 탈락' 한국야구... 실패요인은 '무기력한 타선'

한국 야구의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라운드 탈락은 '우물 안 개구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한국 WBC 대표팀은 2017 WBC 1라운드 A조에서 1승2패를 기록, 2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은 지난 8일 이번 대회 본선 진출국 가운데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세계랭킹이 41위로 가장 낮은 이스라엘에 1-2로 충격패를 당했다.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한국은 메이저리거가 즐비해 A조 최강국으로 꼽힌 네덜란드에 지난 7일 0-5로 완패했다.

한국은 지난 8일 네덜란드가 대만에 6-5로 이기면서 1라운드 탈락이 확정됐다.

한국은 9일 대만과의 '탈골짜기' 싸움에서 연장 끝에 11-8로 힘겹게 이겨 간신히 2021년 WBC 본선 직행 티켓을 지켜내는데 만족해야 했다.

2006년 제1회 WBC 4강, 2009년 제2회 대회 준우승의 영광에 비해 보면 형편 없는 성적표다. 안방에서 맞은 처절한 '참사'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야구의 가장 큰 실패 요인으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타선이 꼽힌다.

한국은 메이저리거에서 뛰는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가 모두 불참해 이번 대회에서 국내파만으로 야수진



지난 9일 오후 2017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A조 한국과 대만의 경기에서 김인식(왼쪽) 감독이 국기에 대한 경례에 앞서 모자를 벗은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타자들, 이스라엘 · 네덜란드 투수들의 변화구에 '속수무책'

을 꾸렸다.

그럼에도 이번 대회를 앞두고 미운도가 타선보다 더 큰 걱정거리였다.

해외 무대를 경험한 김태균(한화 이글스), 이대호(롯데 자이언츠)에 최형우(KIA 타이거즈)까지 버틴 중심타선의 무게감이 예전 대표팀과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한국 타선은 이스라엘, 네덜란드전에서 190년 1득점에 그쳤다. 이스라엘, 네덜란드 투수들의

빠르고 변화가 심한 공에 속절없이 당했다.

응집력도 부족했다. 이스라엘과의 경기에서 한국 타선은 7개의 안타와 6개의 사사구를 얻어냈지만, 1점을 뽑는데 그치면서 이스라엘에 1-2로 달미를 잡혔다. 네덜란드전에서는 안타 6개, 볼넷 4개를 기록하고도 한 점도 뽑지 못했다.

대만과의 최종전에서 타선이 활기를 띠며 장타 18안타로 11점을 올렸지만, 이미 1라운드 탈락이 확정된 뒤였다. 기대를 걸었던 중심타선은 더욱 실망

스러웠다.

김 감독은 이스라엘, 네덜란드전에서 김태균, 이대호에게 3, 4번 중책을 맡겼다. 둘의 몸값을 합치면 234억원(4년 기준 이대호 150억원 · 김태균 84억원)이었다.

이들은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태균은 패배한 2경기에서 7타수 무안타로 침묵했고, 이대호도 2경기에서 9타수 1안타에 그쳤다. 2경기 동안 둘 모두 타점은 없었다.

극심한 타고투저 현상 속에 국내 타자들의 KBO리그 성적도 '신기루'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김민근 기자

신의현, 장애인노르딕스키월드컵 '금메달'

한국 장애인 노르딕스키의 간판 신의현(37·창성건설)이 2017 정선 세계장애인알파인스키월드컵 파이널 크로스컨트리 스키 롱 좌식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신의현은 지난 11일 강원도 평창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대회 대회 크로스컨트리 남자 15km 좌식에서 45분41초2를 기록해 금메달을 땀다. 이 대회는 평창동계패럴림픽 개막에 앞서 열린 테스트이벤트다.

전날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좌식 종목에서 은메달을 딴 신의현은 이날 주종목인 크로스컨트리스키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평창패럴림픽에서의 메달 전망을 밝혔다.

이날 신의현은 레이스 내내 선두를 유지한 끝에 미국의 앤드루 소울레(35초 8)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신의현은 경기 후 "경기장을 찾아준 가족의 응원에 더욱 힘이 났다. 이번 테스트이벤트를 통해 자신감을 많이 얻었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 평창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같은 종목에 출전한 이정민은 7위, 여자 좌식 종목(12km)에 출전한 서보라미는 11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15일까지 열린다. 신의현은 15일 크로스컨트리 미들 종목에 출전해 전 종목 메달 획득을 노린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